

일상에서 마주한 한일 관계의 변화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일본 도쿄 시부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차로가 있다. 사방에서 신호가 바뀌면 최대 3천 명이 동시에 길을 건너는 장면은 장관을 이룬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많은 인파가 오가고 있어 일본 뉴스의 단골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주위에는 충전 하치코 동상도 있어 외국인 관광객도 꼭 한 번은 들르는 명소로도 자리를 잡았다. 며칠 전, 필자는 그 교차로 정면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매장 안에는 굿즈를 고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곳은 바로 BTS의 팝업 스토어였다. 그 순간 '요즘 일본인들은 한국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선입견이 흔들렸다. 역사문제와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면서 양국은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그 여파로 인해 소비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부야 한복판에서 목격된 풍경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필자의 기억 속에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 두 개의 나라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스포츠 대회로 한일 양국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월드컵 공동 개최가 성사되기 전에 이미 도쿄의 코리아타운이라 불리는 신오쿠보에는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그리고 한국 연예인의 음반과 굿즈를 사기 위해 많은 일본인이 방문하고 있었다. 한일 관계 개선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드라마 '겨울연가'였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를 통해 방송된 이 작품은 일본 사회에 '한류 열풍'을 본격적으로 일으켰고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문화 교류가 늘어나면서 경제로 이어졌고 민간 차원의 문화, 산업 협력이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영풍한 곳에서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정치·외교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 민간 영역의 교류도 위축되어 버린 것이다. 서로에 대한 거리감은 다시 커지게 되었고 자국적인 사건들이 하나, 둘 터지면서 그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따라서 이번 시부야에서의 경험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둘러보니 BTS의 팝업 스토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편의점에서는 한국 컵라면이나 음식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신오쿠보 이외의 지역에서도 '한국 식품 전문점'이 눈에 띄었다. 과거에는 신오쿠보에 국한되어 있었던 한국산 상품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소비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국의 슈퍼에서도 이제 어렵지 않게 일본 제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정치·외교적인 갈등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의 문화와 소비 교류는 이전보다 더 넓고 깊게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필자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정치·외교 분야의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일상 속 교류는 이미 국경을 넘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물론 한국과 일본 관계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인 대립 관계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정치·외교 분야의 냉기를 빠르게 전환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의 문화와 일상을 공유하며,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산연연구원 선임연구원

산업이 계급을 가르는 시대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한 명품관 직원이 허름한 점퍼 차림의 손님을 무시한다. 그러나 점퍼 안쪽에서 SK하이닉스 로고가 드러나자 태도는 곧바로 바뀐다. "하이닉스님?"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한 장면이 화제다. SK하이닉스 직원이 하나의 밈처럼 소비되는 것은 단순히 성과급이 역대급으로 예상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SK하이닉스 로고가 더 이상 회사명이 아니라 보상의 크기를 짐작하게 하는 상징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같은 직장인이라도 어느 산업, 어느 회사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삶의 수준, 이른바 '급'이 달라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이 성과를 낸 만큼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격차가 개인의 노력 차이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공지능 수요와 반도체 호황은 일부 산업에 막대한 보상을 몰아주고 있다. 반대로 다른 산업의 노동자는 비슷한 시간을 일해도 그만한 상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들에게 취업은 더 이상 직무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산업의 호황에 올라타느냐가 커리어의 출발선을 가르는 문제가 됐다. 개발자든 사무직이든, 직무가 같아도 반도체·AI처럼 돈이 풀리는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 보상과 평판은 달라진다. '하이닉스님'이라는 농담이 마냥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직무보다 산업, 노력보다 시장의 파도가 개인의 몸값을 먼저 결정하는 사회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격차를 모두 없앨 수는 없다. 없애는 것이 정답도 아니다. 그러나 격차를 줄일 기회가 줄어들어 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산업 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재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고,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약해지면 격차는 곧 계급이 된다. 격차가 커질수록 개인의 노력만으로 그 차이를 따라잡기 어렵고, 산업의 흥망이 개인의 삶까지 과도하게 좌우하는 구조로 굳어지기 쉽다. 성과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의 호황이 일부에게만 계층 이동의 기회로 작동하고, 그 밖의 일자리에서는 삶의 전망이 희미해지는 구조는 경계해야 한다. 직무 전환 교육과 산업 이동 지원, 중간소득 일자리 보호가 더 촘촘해져야 하는 이유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9일 (음 3월 1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너무 거만하지 마세요. **60년생**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72년생** 이성과 다툼을 주의하세요. **84년생** 고민하던 이성문제가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 49년생**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61년생** 늘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73년생**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어하던 귀인이 찾아옵니다. **85년생** 삶을 좀 더 즐겁고 활기차게 살도록 하세요.
- 50년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62년생** 사치를 삼가하세요. **74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86년생** 주위사람에게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 51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63년생**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75년생**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게 좋을 것입니다. **87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결과가 좋습니다.
- 52년생** 좀 기다리고 행동하세요. **64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들어가세요. **76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88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 53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65년생** 신성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77년생** 몸과 정신이 맑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89년생**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 54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66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심하세요. **78년생** 호흡기질환을 조심하세요. **90년생** 학업에 열정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 55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67년생** 능력 있는 워킹맘을 만납니다. **79년생** 집에 있음이 좋을 것입니다. **91년생**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56년생** 잠든 사이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습니다. **68년생** 소인배와 함께 다니면 반드시 안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80년생** 의지를 확고히 할 때입니다. **92년생** 몸을 조심하세요.
- 57년생** 건강운이 길하지 않습니다. **69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1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마세요. **93년생** 서쪽으로의 여행이 좋습니다.
- 58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0년생** 어려운 고비를 넘깁니다. **82년생** 단합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94년생** 몸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 59년생** 모든 사람이 나의 벗이 됩니다. **71년생** 모든일이 원만히 풀려 나갑니다. **83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95년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수(數)의 비밀 ②

사연인즉슨, 만며느리에게서 만며느리에게로 함은 전달되었다. 그런데 5대 손부에게 소강절선생의 예측대로 정말 역적 누명을 덮어쓰고 하옥되었다. 역적은 멸문지화를 입고 품비박산이니 백방으로 구명할 길을 찾았으나 방법이 없다가 5대 손부는 갑자기 시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났다. 달리다시피 하여 형조판서의 집에 당도하여 소강절 선생의 유품을 가지고 판서를 뵈고자 청했다. 형조 상서는 그 말을 듣고서는 이미 작고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그 명망 높은 대 정치가요 문장가이자, 주역에 달통하여 천지의 돌아가는 운수와 인간의 길흉화복을 꿰고 있던 선생의 유품을 방안에 앉아서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여, 마당까지 나아가 돛자리를 깔게 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서 그 유품을 받았다. 이게 웬일인가, 유품을 받는 순간 자기가 방금 앉아 있던 사람재가 그대로 폭삭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급히 일어보았다. 그러나 함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글자가 쓰인 하얀 창호지 한 장만 들어있었다. 재빨리 펼쳐 보니, '네가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살려주니, 나의 5대 손을 구해 달라.' (活汝壓樑死 救我五代孫) 라고 씌어 있을 뿐이었다. 형조판서는 재수사를 명하여 소선생 5대손의 무죄함을 가려냈고 생명과 가문도 보전하게 된다. 선천상수학의 원리를 해석이 난해할 수도 있는 주역의 이치와 연결하여 매화역수라는 독특한 수리 역학이다. 수리를 우주와 세상의 이치를 보고 밝히는데 통달한 소강절선생은 후손의 운명은 물론 그에 얽힌 운수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이니 이는 기적을 넘어 神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이치는 수(數)로 나타낸다고 했다. 고대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주역의 체계가 잡힌 동북아문화권에서는 복희씨가 그러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과난이도의 월드피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4	3	6	8
7				9	
	5		1		4
8			9	5	
	7	5			2
4			3		8
	6				7
3	2		6	7	1

6	1			4	8	
				4	3	9
9	4					
3			2			
	7		5		9	
			8		1	
				6	2	
6	1	5				
		8	3		5	7

6	7	1	8	2	9	5	2	8
2	8	2	9	6	7	9	8	1
9	8	9	1	8	2	2	6	7
2	1	8	7	9	9	8	2	6
8	6	7	2	8	1	2	9	5
9	9	2	6	2	8	1	7	8
7	2	8	2	1	6	8	9	9
1	2	6	9	9	8	7	8	2
8	9	9	8	7	6	1	2	2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0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선 문예리장령을 준수합니다.